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종교편향에 앞장선 정치권

지난달 2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템플스테이 발전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주회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조순선, 최문순 국회의원과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후원은 대한불교조계종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맡았다. 이 자리에서는 템플스테이 운영 주체 간 역할분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주요 목적은 템플스테이를 더욱 활성화하여 이를 전국 사찰로 확대하는 것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2011년 템플스테이 예산을 주무 부서인 문체부에서 109억원을 올렸는데, 국회 예산 소위원회에서 무려 43억원을 증액한 152억원을 상정한 것으로 밝혀져, 국민들의 특정종교에 대한 종교편향 감정은 동떨어진 모습을 정치권이 보여 주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사찰 체험 프로그램인 템플스테이 문제가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의원들은 특정 종교 색채를 띤 행사에 스스로 예산액을 대폭 증액시키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시국이 매우 긴박하다. 지난날 23일 북한의 연평도 무차별 포격으로 선량한 국민들과 병사들이 죽고, 민가가 불타고 주민들이 피난하는 등 국가 전체가 어수선하다. 그런데도 국회에서는 특정 종교의 논치를 보며, 그 종교를 위하여 스스로 예산액을 '알아서' 올려주는 그야말로 어이없는 행보를 보여 준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축사와 인사말을 한 인사들이 한

결같이 템플스테이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불교계에서 예산이 결정되는 절묘한 시점에 이런 세미나를 연 것은 무슨 의미이며, 불교계의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불교계가 종교편향에 앞장선 이 프로그램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축사를 맡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정병국 의원(한나라당)은 '템플스테이 지원이 특정 종교에 편향적인 사업이라는 시각은 잘못'이라며, 기독교계를 겨냥한 듯한 발언도 하였다. 이제는 정치권이 불교를 돕는 일에 앞장서다 못해 기독교를 비난까지 하고 있다.

지난해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외국인인 2만 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거기에는 순수하게 해외에서 들어온 외국인인 그 10분의 1이 안 된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렇다면 한 해에 2000명도 안 되는 해외 외국인을 위하여 국민의 세금인 185억원을 지원해야 하는 것인가? 과연 이를 통하여 얼마만큼 관광수입을 올렸다는 것인가? 그런데도 정치인들이 특정 종교 지원과 관계없다는 말을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각 분야에서 지출해야 할 예산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다. 당장 북한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방 예산의 증액이 필요할 것이고, 소외된 국민을 위하여 복지예산이 더 필요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교육 예산 등에도 지금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이 특정 종교를 위한 예산 올려주기에 급급하다니, 제 정신이

란 말인가? 사찰 체험, 혹은 절 체험인 템플스테이가 정말 필요하다면 불교에서 늘 자랑하는 2,000만 불자들이 이 힘을 모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왜 굳이 국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포교를 도와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정치권의 불교 돕기는 끝이 없다. 지난 2008년에는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재관리기금법' (제 사찰 보존을 위한 법이 바뀐 것)이 통과되었는데, 이 법은 5년간 5,000억원을 정부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이 지난 8월에 대표 발의하여, 국립공원 내에서 사찰들이 증축·개축·신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연공원법'을 준비하고 있다. 거기에는 이 법에서는 향후 5년 간 273억 원의 국고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것도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와 편향 아닌가.

왜 국민의 세금을 특정 종교에 쏟아 붓는 일을 정치권이 앞장서서 하고 있는가 묻는다! 정치권이 이에 착안하고 대한민국을 특정 종교화 하려는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정치권 때문에 우리 사회는 종교 갈등, 사찰 갈등이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종교 갈등의 책임이 일부 정치권 인사들에게 있다고 하여도, 개이지 않겠다는 배짱인지 두고 볼 일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형오, 정병국, 최문순, 조순선 등 여·야 의원 다수와 유인촌 문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회언론회 제78차 실행위 열려

우리사회 속에 교회의 공정성을 세우자



한국교회언론회(이사장: 최성해 총장, 대표: 김승동 목사)는 19일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실에서 제78차 이사·실행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모임은 6대 대표로 김승동 목사가 취임한 이후 첫 번째이다. 이 자리에서 사무총장 이병대 목사는 지난 한 달간 보도자료 4회, 논평 4회, 공문발송 7회, 미디어

입기 및 칼럼 기고, 각 언론 활동 10회 등을 하였음을 보고하였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기독교의 입장을 밝혔는데, 법무부에는 동성애 차별 금지법 제정에 대하여, '동성애를 지지하는 일부의 의견에만 치중하지 말고 국가의

미래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 법을 만드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분별해 달라'는 요지의 공문을 보냈음을 보고했다. 또 동성애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균형법 제2조의 위헌심판 청구 및 탄원 건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 '군대 내 동성애를 허락할 경우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은 물론, 군대 내에서 상명하복 하에 성폭력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결정을 해 줄 것을 요청했음'을 보고했다.

이날 실행위에서는 교계를 둘러싼 문제에 대하여 토의하였는데, 첫째, 언론회 사역 확대를 위하여 전국 교회에 협조를 얻는 일에 주력하며 둘째, "주체별로 보는 한국교회사"를 발간하여 교회가 국가와 역사 가운데 긍정적이며 지극심을 갖고 계승해야 할 사실들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는데 힘쓰기로 했다.

셋째, 타종교와의 문제에 있어서도 깊이 연구하기로 하였다. 즉 오해 부분을 해소하여, 종교간 평화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며, 교회의 정당한 입장도 세우도록 하는 일에 노력한다는 것을 결의하였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앞으로도 교회의 정당한 입장과 사회적 분위기에 변화에 따른, 교회의 공정성을 세우는데 노력하기로 하였다.

사설

총회 목회대학원 계절학기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통합) 2010년도 하반기 목회대학원 계절학기가 3박 4일간 개최되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통합)는 현재 한국교회의 공교 단으로서 한국교계에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는 교단으로 성장했으며 각종 한국교회 연합활동에서도 그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통합)는 1953년 제스넛 선교사와 허홍 목사의 창립선포로 출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통합)는 성경을 절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세주로 믿으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능력을 받아 복음을 전파하는 회원 교회들로 구성 되어 있다. 총회 신하 교회들은 성경과 교단헌법에 의해 운영되며, 교회의 전통과 권위 및 질서를 존중하여 간다. 아울러 기본적인 교리와 신앙을 함께 하는 교단들과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고 있다.

이번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통합) 2010년도 총회 목회대학원 계절학기 참가자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말씀중심에서 오순절성령충만운동의 메시지를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기원한다.

이번 강좌에는 개회예배와 특강을 통해 교단 국제총회정인 배진기 교수의 구약과 신약의 선교메시지, 상임운영위원이며 선교위원장인 표순호 목사의 목회서신, 박명일 목사의 전도학, 서정복 목사의 로마서, 김경규 목사의 대산지서·소산지서 등의 열강이 3일간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루 네 차례씩의 강의를 계속되었다. 명강사들로부터 귀한 시간이 되었음을 감사드리고 교단 목회자로서 더욱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전력을 다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참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하는 것이다. (요한 13:6) 의롭고 진실한 편을 선택함으로써 갖게 되는 참된 기쁨과 행복감을 한 번 맛 본 사람은 비록 고난과 손실과 소외를 당한다 하여도 개의치 않는다. 불의하고 거짓되게 행하여 얻는 소득은 분토처럼 여긴다. 성공적 사역이란 물량적 수치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면 세상의 찬사란 무가치한 것이다. 착함과 의와 진실을 좇아 매사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을 자랑과 기쁨과 보람과 성공으로 여기고 전진하는 사역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사랑의 온정 식지 않기를...

12월 1일 올해도 어김없이 구세군 자선냄비가 등장했다.

1891년 성탄절이 가까와 오던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도시 빈민들과 갑작스런 재난을 당하여 슬픈 성탄을 맞이하여 약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여야 했던 구세군의 한 사관(조셉 맥피 정위)은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중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다. 바로 옛날 영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누군가가 사용했던 방법이였다.

그는 오를랜드 부두로 나가 그 곳에 주점에서 사용하던 큰 쇠술에 다리를 놓아 거리에 내 걸었다.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써 붙였다. "이 국술을 끊게 합시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성탄절에 불우한 이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할 만큼 충분한 기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웃을 돕기 위해 새벽까지 고민하며 기도하던 한 사관의 깊은 마음이 오늘날 전세계 100개국에서 매년 성탄이 가까워지면 실시하게 되는 구세군 자선냄비의 출발점이 되었다.

올해 구세군 자선냄비는 모금 목표를 지난해보다 5% 오른 4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전국 76개 지역 34여곳에 자선냄비를 일체로 설치하고 모금에 들어갔다. 매년 모금액이 증가해왔던 구세군 자선냄비가 올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비리 등으로 위축된 나눔문화로 인해 팔릴 줄을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올해는 예년보다 많이 추운 겨울이 예상된다고 한다.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의 고통이 더욱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사랑의 온기가 식지 않도록 온 국민의 사랑의 온정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목양신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통합) 총회신문
THE ASSEMBLIES OF GOD, KOREA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 대표총회장 조용목 목사
- 발행인·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677@paran.com
150-1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5가 89-1
-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2011년도

교단공과 신청

※가격 : 권당 5,000원(1년분)

유치부 학생용

유년부 학생용

초등부 학생용

※ 옆의 표지는 공과 샘플입니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학생용 및 교사용, 중·고등부,성인부 공과가 발간됨)

※ 주문처

- 전 화 : 031)233-2922, 02)2675-5181~3
- 휴 대 폰 : 010)4399-5863
- 입금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19713 조용목
- 팩 스 : 031)223-1793

★ 2010년 12월 15일까지 신청된 수량만 인쇄합니다. ★

도서출판 예성